

한·일 산학연, 그린철강에 힘 모은다

-「제1회 한-일 그린철강 공동세미나」 개최, 탄소규제·기술동향 논의

한국철강협회와 일본철강연맹은 9월 21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양국 정부, 업계, 전문가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“제1회 한-일 그린철강 공동세미나(1st Korea-Japan Green Steel Joint Seminar)” 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.

4년 7개월 만에 지난 5월 도쿄에서 재개된 한-일 민관 철강협의회에서 양국은 그린철강 관련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한바, 보다 특화된 논의의 장을 마련키로 하고 공동세미나의 신설을 추진해왔다.

이날 행사에는 포스코, 일본제철 등 양국의 주요 철강사와 서울과기대 이상준 교수, 한국금속재료연구조합 등 산·학·연 관계자들이 글로벌 탄소정책, 그린철강 표준, 기술개발 등에 관한 양국의 대응 현황 및 협력 방안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.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방문규) 오충종 철강세라믹과장은 축사를 통해 “맞닿은 두 개의 연못이 서로 물을 주어 마르지 않게 한다는 ‘이택상주(麗澤相注)’ 의 정신으로 양국 철강산업이 그린철강을 비롯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기 바란다” 고 밝혔다.

한국철강협회 변영만 부회장은 “통상환경의 변화와 이를 극복할 최신 기술 개발 동향 논의를 통해 양국이 탄소중립으로 향하는 길을 향해 함께 첫 걸음을 내딛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” 는 인사말을 전했다.

일본 경제산업성 마츠노 다이ске 금속과장과 일본철강연맹 이즈미야마 지구환경정책위원장 또한 양국 철강업계 간 교류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을 표하며,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하였다.

탈탄소화 요구와 양국 철강산업 간 협력 필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양국 철강업계는 동 세미나를 연 1회 정례 개최할 방침이다.

담당 부서 <공동>	산업공급망정책관 철강세라믹과	책임자	과 장	오충종 (044-203-4690)
<총괄>	한국철강협회 통상협력실	담당자	사무관	김다운 (044-203-4692)
		책임자	실 장	홍정의 (02-559-3553)
		담당자	계 장	송찬승 (02-559-3545)

붙임**「제1회 한-일 그린철강 공동세미나」 행사개요**

- (추진배경) 한-일 민관 철강협의회('23.5.) 시 저탄소화 및 글로벌 탄소 규제 공동대응 필요성에 공감 → 협력 구체화를 위한 공동세미나 추진
- (일시/장소) '23.9.21.(목) 09:30~16:20 / 서울 인터컨티넨탈 코엑스(B1 비바체룸)
- (참석자) 양국 철강담당 과장 및 협회/연맹, 업계·전문가 등 130여명
 - (한국) (정부) 오충종 철강세라믹과장 등, (철강협회) 변영만 부회장 등, (업계·전문가) 서울과기대 이상준 교수, 포스코, 현대제철 등 80명
 - (일본) (정부) 마츠노 다이스케 금속과장 등, (철강연맹) 오노 토루 특별고문 등, (업계·전문가) 일본제철, JFE 등 50여명 (온라인 참석자 30여명 포함)
- (주요내용) 글로벌 탄소정책, 그린철강 표준, 기술협력 전문가 발표

시 간		주요내용	비 고
09:30~09:40	10'	개 회	사회자
09:40~09:55	15'	인사말씀 및 축사	양국 협회·정부
09:55~10:00	05'	기념촬영	
10:00~10:50	50'	[세션1 : 글로벌 탄소정책 동향]	
10:50~11:00	10'	Break Time	
11:00~11:50	50'	[세션2 : 그린철강 국제표준]	
11:50~13:30	100'	오 찬	
13:30~14:20	50'	세션3-1 : 기술협력(수소환원제철)]	
14:20~15:10	50'	[세션3-2 : 기술협력(고로·전로 및 전환기 대응)]	
15:10~15:20	10'	Break Time	
15:20~16:10	50'	[세션3-3 : 기술협력(연원료)]	
16:10~16:20	10'	폐 회	사회자

※ 각 세션별 주제 발표 40분(韓, 日 각 20분) 및 질의응답 10분